

The Contemporary Educational Implications of Dosan Ahn Chang-ho's Thought

Dongyoon Lee
Gangneung-Wonju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pects of Dosan Ahn Chang-ho's philosophy that are relevant to today's education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modern education.

[Contents] This study is composed of three main parts. First, it examines Dosan's principles of self-reliance, humanism, and modeling, discussing their implications for modern home education. Second, it investigates Dosan's educational philosophies related to school education, including “one person, one skill”, gradualism, arts and physical education, and labor education, and explores their relevance to contemporary school education. Third, it explores Dosan's spirit of community and sense of ownership and examines their implications for modern social education.

[Conclusion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osan's principles of self-reliance and humanism provide a guiding direction for contemporary home education. Second, if students can discover their career paths through the diverse curricula advocated by Dosan, school education can undergo gradual transformation. Third, modern society requires Dosan's spirit of community and sense of ownership.

[Keywords] Dosan, Ahn Chang-ho, Community Spirit, Owner Spirit, Humanism

* **Corresponding author** Dongyoon Lee (Lecturer,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Gangneung-Wonju University)
E-mail : n1079@hanmail.ne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도산 안창호 사상의 현대교육적 시사점

이동윤

강릉원주대학교 교직과정부 강사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도산 안창호의 사상 중 오늘날의 교육에 의미가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현대교육에 지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크게 세 개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가정교육과 관련하여 도산의 자력주의와 인본주의, 모델링에 대해 살펴보고, 이 사상들이 현대의 가정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일인일기(一人一技)와 점진주의, 예체능교육과 노작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사상들이 오늘날 학교교육에 남기는 시사점에 대해 탐색한다. 셋째, 사회교육과 관련하여 도산의 공동체 정신과 주인 정신에 대해 탐구하고, 오늘날의 사회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논의한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산의 자력주의와 인본주의는 오늘날의 가정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도산이 주장한 다양한 커리큘럼 속에서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면 학교교육은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셋째, 현대 사회는 도산의 공동체 정신과 주인 정신을 필요로 한다.

[주제어] 도산, 안창호, 공동체 정신, 주인 정신, 인본주의

I. 서론

한반도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간은 질풍노도의 시기였다. 내부적으로는 지배체제가 약화되기 시작하여 근대적인 사상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으며, 외부적으로는 서구의 발달된 문명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왔다. 여기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구문명을 받아들여 근대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던 일본이 제국주의라는 탈을 쓰고 주변국들을 짓밟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격랑에 휘말리게 되었다.

도산 안창호(1878-1938)는 어린 나이에 유학과 기독교를 접하고, 미국에서 합리주의와 프래그머티즘까지 경험하며 당대의 동양과 서양의 사상을 흡수하였다. 또한 평생에 걸쳐 12개국 120개 도시를 방문하여 다양한 실제적 경험을 쌓았으며, 두 번의 망명과 네 번의 투옥을 당하는 등 요동치는 시대에 누구보다 진폭이 큰 삶을 살았다. 도산은 이론과 실재가 조화된 자신의 삶을 고유한 사상으로 직조하여 우리 민족이 자주독립하고 부강해지는데 비계가 되고자 하였다.

도산의 사상은 시간이 지나도 퇴색되지 않고 여전히 국내외에서 빛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는 ‘도산 안창호 우체국’과 ‘도산 안창호 거리’, ‘도산 안창호 고속도로 나들목’이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비교적 최근인 2018년에 미국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매년 11월 9일을 ‘도산의 날’로 지정하였다. 국내에서도 도산이 1913년 설립한 ‘홍사단’이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도산에 관한 연구는 해방 전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도산의 시대 못지않게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어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을 주력으로 삼던 국가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기후 이변이 본격화 되어 가뭄이나 홍수,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졌으며, 이로 인한 다수의 이재민 발생과 식자재 가격 인상 등과 같은 부작용이 빈번해졌다. 또한 2025년 1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여전히 전쟁 중이며,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민자나 난민들과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는 이런 문제들이 해당 국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고스란히 영향을 끼친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혼란스러운 상황에 더해 국내적으로도 경험한적 없는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범람하고 있다.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생률은 0.72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였으며,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 아니라 측정 불가능한 영역에서의 문제 또한 산적하다. 정치에 있어서는 지역주의가 여전히 만연한데다, 45년 만에 계엄령이 내려지는 등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

고 있다. 경제에 있어서도 산업구조 재편의 영향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청년실업자는 늘어만 가고 있으며, 천정부지인 주택 가격은 내려올 줄을 모르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청년과 노인, 남성과 여성이 서로 분열되어 혈통기 바쁘며,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사회의 보편적 성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아중심성이 강한 일부 학생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교권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격변의 소용돌이가 현대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지금, 과거 대혼란의 시대의 중심에 있었던 도산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유의미한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다.

오랜 시간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도산의 총체적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되어 왔으므로, 이 논문에서 또 다시 도산의 교육사상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필요는 없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도산의 사상 중 교육의 세 마당인 가정, 학교, 사회에 현대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오늘날 교육에 지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II장에서는 도산의 자력주의와 인본주의, 모델링에 대해 살펴보고, 이 사상들이 현대의 가정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학교교육과 관련된 도산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일인일기와 점진주의, 예체능교육과 노작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사상들이 오늘날 학교교육에 남기는 시사점에 대해 탐색한다. IV장에서는 도산의 공동체 정신과 주인 정신에 대해 탐구하고, 오늘날의 사회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논의한다.

II. 도산의 사상과 가정교육적 시사점

1. 자력주의 · 인본주의 · 모델링

도산은 어린 시절에 부친을 여의었지만 학식 있는 조부의 밑에서 유학을 익히며 성장하고 있었다.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16세의 도산은 청일전쟁(1894년)을 겪으며 우리의 국토가 유린되는 것을 목도한다. 그는 청일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다. 그 결과 “도산은 ‘외국세력이 마음대로 우리 땅에 들어와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린다(Lee, 2003: 355).” 나라에 힘이 없기 때문에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싸우고 우리 국토를 영망으로 훼손시키는 비참한 일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일전쟁을 경험한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도산은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인 것도 모른 채 살았었던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

청일전쟁을 통해 각성한 도산은 이런 참사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는데, 이것이 바로 ‘자력주의’ 사상이다. 국가적 측면에서의 자

력주의는 청나라나 러시아의 힘에 의지하여 일본에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스스로 강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며, 개인적 측면에서의 자력주의는 부모나 형제의 힘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힘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독교 신자였던 도산은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지향하고, 자비와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그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일생에 걸쳐 몸으로 실천하였는데, 사람의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존경심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다. 도산이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또 다른 이유는 모든 사회개조의 시작은 인간 개인의 개조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의 인본주의는 중의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에 대해 박의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도산의 경우 인본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서 인도주의(휴머니즘)를 뜻하며, 또 하나의 측면은 모든 일의 성패가 인간에게 달려 있다는 인간중심주의를 의미한다(Park, 2010: 88).

도산은 인간만이 스스로 개조하는 동물이라고 보고 가장 작은 단위인 개인부터 개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마치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원리처럼 개인이 개조가 된 후 가정, 국가, 세상이 개조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처럼 도산은 국가 개조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인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아끼는 인본주의자였다.

또한 도산은 교육에 있어 모델링¹⁾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모범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또한 다른 개인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도산이 숭선수범을 강조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모델링에 대한 그의 인식은 대성학교 개교식의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나는 ‘본보기’라는 것을 심히 중요시한다.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실천되어 ‘본보기’를 이루기 전에는 파급력이 생기지 못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 학교뿐만 아니라 인격수련에 대하여서도 이 ‘본보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대성학교 학생 중에서 하나 거짓 없는 사람이 생기면 거짓 없는 많은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각자가 나 하나를 건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을 건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Kang, 1950: 22-23).

도산은 실천이 없는 이론은 공허한 것이지만, 그 이론이 실천을 통해 구현된다면 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본다. 도산은 대성학교에서 자신의 교육사상을 그대로 실천하였고, 대성학교보다 늦게 개교한 여러 학교들은 대성학교를 모델링하기 시작했다.

1) 도산은 이를 ‘본보기’라고 표현하였으나 현대 교육학에서는 ‘모델링’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로 모델링으로 표기하되 맥락에 따라서는 본보기를 그대로 쓰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도산은 그 자신이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았다. 그는 평생을 자신이 강조했던 4대 정신인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았다. 그의 삶은 언제나 정의로운 방향으로 성실히 나아갔으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 동지들과 뜻을 모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이처럼 도산은 그 자신의 삶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 다른 개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변화를 유도하였다.

2. 가정교육에의 시사점

인본주의자였던 도산은 대성학교를 운영하며 자신의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들이 규칙을 어겼을 때는 매우 엄격하게 벌했다. 반면에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애정과 자유를 주지만 상대적으로 규칙은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 자기중심적인 학생들이 많다는 불멘소리가 교육기관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의 가정교육은 어려운 부분이 많다. 과거에는 맞벌이의 비중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지만 현대사회에서 맞벌이는 거의 필수조건이 되었다. 부모가 아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훈육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진다. 더욱이 하루 종일 아이와 떨어져 있어야 했던 부모는 퇴근 후 아이에게 애정을 몰아서 줄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훈육은 뒤로 밀리기 쉽다. 그러나 도산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상황일지라도 훈육을 통한 규칙의 준수는 철저하게 교육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도산 역시 아이들에게 애정을 충분히 주어야 하고 아이들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그것은 규칙 안에서의 자유로, 규칙이 무너지면 교육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규칙은 자유보다 선행한다고 여긴다. 이는 비단 과거에만 적용되는 주장이 아니다. 오늘날 이상적인 가정교육으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 부모들은 규칙을 존중하고 자제력을 갖추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Druckerman, Lee trans., 2014: 283). 프랑스의 가정에서는 평소에는 부모가 다정하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만, 아이들이 정해진 규칙을 어겼을 경우는 이에 대해 엄격하게 지적한다. 아이에게 충분한 자유를 부여하지만 그것은 규칙을 지키는 선 안에서의 자유임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도산의 인본주의 역시 아이에게 무한대의 사랑만 주는 것이 아닌 규칙과 책임도 가르치는 것을 지향한다.

가정에서의 인본주의는 자력주의로도 연결된다. 부모가 아이에게 자유와 규제를 적절히 제공할 때 아이는 스스로의 힘을 지닌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 자유가 과하게 제공되면 책임감이 부족한 아이로 성장하게 되며,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과한 경우 자기주도성이 부족한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 근래의 일부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로 인해 야기된 책임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도산의 자력주의에 따르면 아이들은 부모의 힘에 기대지 말고 자기 자신의 힘을 가지기 위한 연습을 해야 한다. 자녀가 스스로의 힘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성인이 되어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아이로 계속 남을 것인지는 부모의 교육 방식에 달려있다. 그러나 최근의 부모는 거의 대부분이 1980-90년대에 태어난 MZ세대들로 그들 자신이 이미 기존 세대에 비해 자기중심성이 강한 세대들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1명 또는 많아야 2명의 자녀를 낳는 상황 속에서 자녀에게 집착하는 부모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기본목적은 자녀가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임을 유념하며, 자녀의 일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자녀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오늘날 가족의 구조는 모델링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야기한다. 대가족 제도였던 과거에는 가족 구성원이 많아서 주변에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3-4인 가족이 대부분이다. 3인 가족의 경우는 모델링할만한 사람이 부모들 밖에 없다.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절대적인 수도 부족한데 맞벌이 때문에 낮 동안은 부모와 떨어져 있다 보니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요즘의 아이들은 과거에 비해 가까운 사람의 언행을 직접 보고 무언가를 배우기가 어려워졌다.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가 이러한 새로운 가족 구조를 인지하고, 자녀에게 최적화된 본모기를 보이는 것이다. 자녀의 수가 적으면만큼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아이에게 전념하고, 일관성 있는 양육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이에게 양적으로는 부족하더라도 질적으로 뛰어난 모델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III. 도산의 사상과 학교교육적 시사점

1. 일인일기 · 점진주의 · 예체능교육 · 노작교육

도산은 모든 국민이 각자의 자질에 맞는 하나의 직업을 택하고 부단히 연마하여 그 분야에 서 1인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설령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활동이 없는 날에는 자신의 원래 분야의 일을 열심히 도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글에 일인일기(一人一技)에 관한 도산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어느 중국사람 하나는 평생에 연꽃 그리기를 공부하여 썩 잘 그렸으므로 미국과 유럽을 순회하면서 큰돈을 모았다더라. 어떤 일본인 하나는 평생에 총 쏘기를 공부하여 썩 잘 쏘므로 만국 사격 협회에서 일등상을 받았다더라.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무엇이든 썩 잘만 하면 족히 부자도 되고 이름도 이루며, 국가와 민족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나니 …… (Heungsadan, 1964: 27).

이처럼 도산은 일의 경중에 상관없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보

았다. 그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고, 짐승을 잘 치는 사람은 짐승을 치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기술을 배워 그 일에 종사하기를 바랐다. 각자가 적성에 맞는 일을 찾고 그 일에 성실히 종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인 동시에 국가를 위한 일인 것이다.

도산은 자신의 핵심사상 중 하나인 점진주의를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택한다. 그러나 “도산에게 있어서 ‘점진(漸進)’은 결코 천천히 나가라는 뜻이 아니다. 쉬지 말고 꾸준히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단계를 밟아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희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전진하라는 뜻이다 (Korean Philosophy of Education Society, 2020, 26).” 도산의 독립운동에서의 점진주의는 당장 병력을 모아 전쟁을 치르자는 급진론자들과는 달리, 실력양성을 통해 독립전쟁 준비를 추구한 것이다(Ban, 2019: 36).

점진주의는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았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그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기초부터 하나씩 쌓아야 한다. 그렇게 준비된 계획에 따라 멈추지 않고 꾸준히 힘쓰다면 어느 순간 결과는 자연스레 수반된다.

도산은 교육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분야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교과교육만으로는 참된 인격교육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대성학교에 정규 수업 외에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외 활동)을 장려하였다. 여기에는 당시로는 파격적이었던 음악부·축구부·야구부·연극부와 같은 예체능 동아리 부서도 포함되었다. 동아리 부서가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운동용품과 악기가 충분히 구비되어, 서양 선교사 팀과 야구 시합을 하는 등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당대의 다른 학교에서는 찾기 힘든 실험적인 운영이었지만 재학생들은 예체능 교과외 동아리 활동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오늘날 학교현장에서 예체능 교과가 지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입시교육에 밀려 여전히 간과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한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100여 년 전 도산의 대성학교가 더 낫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도산은 민족운동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1913년에 홍사단을 조직하였다. 그는 홍사단에 ‘동맹작업’이라는 수련과정을 설치하였는데, 단원들이 주기적으로 함께 노동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동맹작업은 도산이 처음 미국 생활을 시작했을 때 동포들과 캘리포니아의 농장에서 함께 오렌지를 따며 강한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함양했던 경험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동맹작업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체험하는 것은 물론, 협동 정신과 공동체 정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도산의 이러한 동맹작업은 현대 교육학적 용어로는 ‘노작교육2)’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양의 노작교육은 페스탈로치로부터 알려지기 시작하여 케르센슈타이너의 시대에 본격화 되었다. 그들 역시 도산과 마찬가지로, 손으로 하는 작업과 관련된 영역을 단련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부분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다(Korea University Research Group on the

2. 학교교육에의 시사점

오늘날 학교는 학생 개인의 적성이나 흥미에 상관없는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다수의 학생들은 학교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학창시절은 오직 대입을 위해 버티는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대학을 선택할 때에도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기보다 인지도가 높은 대학이나 취업이 잘되는 학과를 기준으로 삼아 선택하는 경향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현재의 삶도 미래의 삶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다르게, 도산에게 교육은 현재의 삶의 과정이며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Korean Philosophy of Education Society, 2020, 13). 도산의 일인일기의 전제는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 일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나 급여 등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판단으로 자기가 잘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사실 어떤 일이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 후에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경제적인 부분은 변화하기 마련이므로, 잘 해낼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외부요인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타인보다 잘하는 그 무언가를 찾는 것이다.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점진주의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적성과 무관한 진로를 선택하거나 아무 방향성 없이 막연히 성적만을 올리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경우는 점진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채로 공부를 하면 흥미를 잃기 쉬운데, 인간의 본성상 흥미가 없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공부하는 학생은 흥미를 동반하여 점진주의를 통한 학습효과를 더욱 극대화 할 수 있다. 흥미와 재능이 있는 영역에 점진적인 노력까지 더해지면 성장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 주변의 인정을 통해 자존감이 향상되고 나아가 자신의 일을 더 좋아하게 되는 선순환이 반복된다. 결국 도산의 일인일기와 점진주의를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이 정말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개인에게 기존의 틀을 따르게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성학교와 흥사단을 다루며 언급했듯이 도산은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예체능교육과 노작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실제로도 이 교육들은 학생들의 진로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교육되어야 하는 교과목들이다. 하지만 오늘날 예체능 과목이나 노작교육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입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교과목들인데다 예체능과 기술관련 직종은 높은 경제적 보상을 획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통념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학생이 예체능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학생은 일단 학교에서 예

History and Philosophy of Education, 2009: 242). 이러한 맥락에서 페스탈로치의 전인교육론은 지능력(머리)과 심정력(가슴)뿐만 아니라 기능력(손)까지 도야하고자 하였다.

체능 교과를 간과하는 풍조에서 일차적으로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이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인생이 비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이 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으려하면, 가정과 사회에서 그 쪽 분야는 경제성이 없으니 다시 생각해보라는 견제가 들어오기 일쑤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데 있어 외부의 제동이 반복적으로 걸리게 되는 체제인 것이다. 이러한 뒷에 걸리지 않은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도전할 기회를 얻지만, 우려의 시선을 무릅쓰고 다른 일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모든 학생은 무언가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의미 있게 발달시킬 능력이 있으므로, 학교는 다음 세대의 잠재력을 신뢰할 의무가 있다 (Masschelein, & Simons, Yoon trans., 2020: 101-102).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능한 다양한 주제들에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가정이나 사회와 같은 외부 세상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신의 길을 온전한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IV. 도산의 사상과 사회교육적 시사점

1. 공동체 정신·주인 정신

도산의 삶은 언제나 공동체를 위한 삶이었다. 1902년 도산은 교육학을 공부하기 위해 아내인 이해련과 함께 미국에 도착한다. 미국에서의 생활을 막 시작하려는 무렵, 샌프란시스코의 길거리에서 조선인 인삼장사꾼끼리 머리를 잡고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도산은 이내 싸움을 했던 장사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동포들 삶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임을 깨달았다. 당대의 재미동포들은 장사나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대부분 약속 시간도 잘 지키지 않고 잘 씻지도 않아 행색이 남루하기 이를 데 없었다. 도산은 이에 충격을 받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은 국가의 수치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을 야만으로 보고 한국은 독립할 자격이 없는 민족으로 볼 것이다. 이들을 지도하여 모범이 되게 해야만 한국이 독립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이다(Dosan Academy, 2007: 40-41).

이에 도산은 자신의 학업을 미루기로 결심하고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 술선수범하여 동포들이 기거하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청결한 위생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하였다. 인삼 상인들끼리도 서로 연대하여 싸우지 않고도 공평하게 이익을 남길 수 있게 하였다. 1년쯤 지나자 미국사회에서 한국인들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졌고 미국 언론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은 후에 ‘대한인국민회’가 되는 한인 친목회를 결성하였으며, 미국에서는 도산의 이러한 업적을 기려 오늘날까지도 그를 기억하고 있다.

이후에도 도산은 신민회 조직 통합, 하와이 동포 분열 조정, 멕시코 한인 근로자 문제 해결 등과 같이 국내외에서 공동체를 화합하는 역할을 했다. 그의 공동체를 위한 삶의 백미는 역시 임시정부를 통합한 일일 것이다. 1919년 민족자결주의라는 국제적인 흐름 속에 일어난 3·1운동은 우리의 독립 의지를 고취시켰다. 흥분된 분위기 속에 임시정부가 구성되었는데 문제는 상해 임시정부 외에도, 서울의 한성정부와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 정부까지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한 국가에 3개의 정부가 구성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도산은 세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마침내 통합임시정부를 출범시킨다. 상해 통합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국무총리 이동휘와 대통령 이승만이 취임하였지만 도산은 말단직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 이 모든 것이 오직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음을 방증하였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헌법적으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도산의 임시정부 통합의 업적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산은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였다. 그가 평생에 걸쳐서 공동체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주인이라는 주인 정신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산은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 분열을 막으려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주인인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 그토록 통합을 추구했던 것이다. 도산은 주인과 나그네의 예시를 들어 주인 정신을 설명한다.

그 민족 사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심이 있는 자는 주인이요 책임심이 없는 자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한때에 우리 민족 사회를 위하여 뜨거운 눈물을 뿌리는 때도 있고 분한 말을 토하는 때도 있고 슬픈 눈물과 분한 말뿐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하여 몸을 위태한 곳에 던질 때도 있다 할지라도 이렇다고 주인인 줄로 자처하면 오해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도 남의 집에 참변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눈물을 흘리거나 분한 말을 토하거나 그 집의 위급한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몸을 던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이 아니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한때 그러고 말뿐 그 집에 대한 영원한 책임심은 없습니다(Joo, 1999: 518-519).

여기에서 도산은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나가는 행인도 주인을 도와 물을 뿌리고 함께 슬퍼해 줄 수도 있지만 그는 떠나면 그만인 것이다. 하지만 주인은 남아서 잔불정리까지 마치고 집을 재건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처럼 민족의 나그네에게는 민족의 일이 일시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에 불과하지만, 민족의 주인에게 민족의 일은 영원한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 본질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도산은 다음과 같은 말로 주인 정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자기의 국가와 자기의 민족을 자기가 구하지 않으면 구하여 줄 이가 없을 줄 아는 것이 곧 책임심이요 주인관념이외다. …… 여러분은 과연 내 몸과 집과 국가와 민족에 대한 책임심이 있습니까, 주인 된 관념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스스로 물어보고 대답하십시오. 이 책임심이 있는 자라야 참 애국자이외다(Dosan Academy, 2007: 64).

도산은 민족의 주인인 우리가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역설하며, 주인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자문해보라고 한다. 그가 보기에 민족의 구성원에게 주인정신은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산의 주인정신의 기저에는 자력주의가 내재되어 있다.

2. 사회교육에의 시사점

오늘날 우리사회는 분열의 시대로 치닫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영남과 호남, 세대 차에 따라 노인과 청년, 근래에는 같은 청년이라도 성별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분열되고 있다. 이렇게 분열의 시대로 치닫는 이유에는 극단적 개인주의의 대두와 이에 따른 공동체 정신의 부재가 있다. 이와 같은 분열의 시대에 평생을 공동체 통합에 힘썼던 도산의 사상은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떠한 이유로 사회가 분열되고 있는가? 가장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는 젊은 세대의 남녀갈등³⁾에 대해 살펴보자. 2018년 이전의 젊은 세대는 성별에 무관하게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으나, 2018년부터는 이른바 젠더 이슈가 하나둘 터지면서 젊은 세대, 특히 20-30대 남녀의 정치적 지지성향이 현저하게 차이내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러한 분열을 봉합해야 할 정치권에서 “진보, 보수 모두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The Kyunghyang Shinmun(2018. 12. 29).)”는 것이다. 보수정당은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진보정당은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제안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 무렵 시작된 젊은 세대내 성별 갈등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3) 반면, 도산은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남녀평등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일 것이다. 도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남녀공학 초등학교인 점진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는 동지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은 성별과 무관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도산은 오늘날에도 실현되지 않은 여성징병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도산은 모든 한국인들,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한국의 독립을 쟁취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알았기 때문에 남녀 모두의 교육과 징병제도를 주장했다(Dosan Thought Research Society, 1995: 254-255).” 한편 도산이 교육을 넘어 징병제도에까지 남녀평등을 주장한 데에는 보편적인 평등사상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과도 관련되어 있다. 여성도 징병하게 되면 독립군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며, 비밀작전을 할 때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의심을 덜 받을 수 있어 민족의 독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특히 왜곡된 페미니즘의 개념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현재의 모습은 통탄을 자아나게 한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페미니즘의 개념은 이른바 페미니즘 운동 노선 중 일부인 ‘급진적(radical) 페미니즘’에서도 극단적인 사상으로 페미니즘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가부장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남성이라는 이유로 가부장제의 수혜를 받은 존재로 보고 적대시하기도 한다. 급진적 여성운동은 초기 여성운동과는 달리 같은 사상을 공유하는 남성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Yoo, 2004: 37). 초기의 페미니즘이 ‘여성이 남성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일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이와 같은 입장은 오히려 반페미니즘적이다. 문제는 반페미니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일부 급진적 페미니즘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페미니즘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페미니즘의 개념⁴⁾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성별을 넘어서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사상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우리는 페미니즘의 오개념을 사용하여 사회적인 분열을 조장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성별에 따른 분열뿐만 아니라 지역, 세대, 소득 등에 따라서도 분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분열의 시대인 것이다. 이와 같은 분열의 시대에 우리는 도산의 공동체 정신과 주인 정신을 다시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산은 평생에 걸쳐 공동체의 통합에 진력해왔다. 그가 이렇게 무수히 많은 분열을 화합 할 수 있었던 것은 특정인이 나 특정단체의 편에 서지 않고 언제나 공동체의 편에 서서 공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에 따라 행동할 뿐 국가 공동체를 위해 사회를 통합하려는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현대사회의 분열을 정치인들만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시민들 또한 그동안 주인정신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서 인용한 도산의 ‘나그네와 주인’의 비유를 떠올리며 비슷하게 예를 한 번 적용해 보자. 어떤 가정 안에서 20대 아들과 딸이 갈등을 겪은 후 이를 해소하지 않은 채로 6년 동안 서로를 혐오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아마 대부분의 부모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바로 중재하려 했을 것이다. 또 당사자인 아들과 딸 역시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부모가 개입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분열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주인 정신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민족의 일이라면 언제나 전력을 쏟아 부었던 도산의 주인 정신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하다.

4) 최근의 여성운동은 환경과 생명에 대한 관심을 통해 여성과 남성, 인간과 자연, 계급과 계급, 인종과 인종, 문화와 문화 간의 억압구조를 극복하고 생명체와 그를 둘러싼 환경 및 인간의 해방을 그 목표로 추구하는 대안적 문화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Yoo, 2004: 42).

V. 결론

이 논문에서는 도산 안창호의 여러 사상 중에서 교육의 세 마당인 가정, 학교, 사회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동체 정신과 주인 정신, 일인일기와 점진주의, 예체능교육과 노작교육, 자력주의와 인본주의,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산의 사상이 100여 년 전에 우리 민족이 일어서는데 이바지했듯이, 오늘날에도 우리교육이 봉착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도출한 도산 사상의 현대교육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산의 자력주의와 인본주의는 오늘날의 가정교육이 지향해야 할 지점을 제시한다.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며 성장하므로 부모는 언제나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아이에게 충분한 자유와 사랑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 스스로 세상을 살아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 또한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도산이 아이들이 규칙을 어겼을 때는 마음 아파하면서도 엄벌에 처했듯,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엄격하게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 자유와 규제가 균형을 이룬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도산의 자력주의이다.

둘째,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면 학교교육은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오늘날 학교교육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학생의 흥미가 수반되지 않는 교육을 한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과목이라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도산이 강조했던 예체능 교과목과 노작교육과 같은 다양한 교과목과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이렇게 다양한 커리큘럼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학생들이 가정, 학교, 사회의 선입견과 무관하게 오로지 자신만의 결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이 자유의지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했을 때여야 지치거나 지루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현대 사회는 도산의 공동체 정신과 주인 정신을 필요로 한다. 우리 사회는 근래에 올수록 나이, 성별, 지역 등을 기준삼아 점점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 유튜브나 OTT 등이 활성화되어 보편적인 주류문화가 사라지고 개별화된 문화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주의 문화가 공고해지고 있다. 여기에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자신의 준거집단으로 생각하는 커뮤니티 문화나, 알고리즘의 콘텐츠 자동 추천 기능 등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정보만 접하게 되면서 현대인들은 오히려 전보다 편협한 세계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결정적으로 이들을 속성에 따라 갈라치기하여 표로 환원하려는 정치인들의 개입으로 분열이 보편화된 시대가 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치인들은 사

익보다 공익을 추구했던 도산의 공동체 정신을 상기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들 역시 도산의 주인 정신을 본받아 분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주체성을 가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현대에 의미를 가지는 도산의 사상에 대해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오늘날의 우리는 국제적으로는 AI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 국내적으로 초고령화 사회와 초저출생 사회의 도래라는 격동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도산의 시대 또한 세계를 휩쓴 제국주의의 흐름에 따른 일제의 침략, 불가피한 개화의 물결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분열되었던 위정자들로 인해 야단법석인 시대였다. 그 혼란한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도산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공동체에 대한 주인정신을 가지고 하나로 뭉친다면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가운데는 교육이 있었다. 이러한 도산의 사상은 전례 없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조명한다. 가정에서는 자유와 통제의 균형을, 학교에서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사회에서는 분열이 아닌 통합을 지향할 때 우리는 변화의 파도에 침잠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Druckerman, P. *Bring up BéBé*, 이주혜 옮김 (2014). 프랑스 아이처럼. 서울: 북하이프.
- Masschelein, J. & Simons, M. *Scholastic Education*. 윤선인 옮김 (2020). 학교를 변론하다. 서울: 살림터.
- Park, B. C., & Lee, J. S. (2019). A Study on Dosan An Chang-ho's National Movement. *Korean Thought*, 13(3), 131-156.
- The Kyunghyang Shinmun (2018/12/29). What Divided the Support for Moon Jae-in Between Men and Women in Their 20s. Retrieved 2024. 11. 30., from <https://v.daum.net/v/20181229171026711>
- 강제환 (1950). 도산안창호웅변전집. 서울: 웅변구락부출판부. (Translated in English) Kang, J. H. (1950). *The Collected Speeches of Dosan Ahn Chang-ho*. Seoul: Woongbyunkurakbu Press.
- 고려대학교 교육사철학연구모임 (2009). 교육사상의 역사. 서울: 집문당. (Translated in English) Korea University Research Group on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Education. (2009). *The History of Educational Thought*. Seoul: Jipmoondang.
- 도산 아카데미 (2007). 한국 사회의 발전과 도산 안창호. 서울: 홍사단 출판부. (Translated in

- English). Dosan Academy (2007). *A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and Dosan Ahn Chang-ho*. Seoul: Heungsadan Press.
- 도산사상연구회 (1995). 도산의 사상과 민족운동. 서울: 학문사. (Translated in English). Dosan Thought Research Society (1995). *Dosan's Philosophy and the National Movement*. Seoul: Hakmoonsa.
-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1999). 수난의 민족을 위하여. 서울: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 (Translated in English). Dosan Ahn Chang-ho Memorial Association (1999). *For a Suffering Nation*. Seoul: Dosan Ahn Chang-ho Memorial Association.
- 박의수 (2010). 도산의 생애와 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Translated in English). Park, E. S. (2010). *Dosan's Life and Educational Philosophy*. Seoul: Hakjisa.
- 박의수 (2011). 도산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성과와 과제. 도산학회, 도산 탄신 133주년 학술발표회 자료집. (Translated in English). Park, E. S. (2011). *A Research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n Dosan's Educational Philosophy*. Seoul: A Proceedings of the 133rd Anniversary of Dosan's Birth Academic Conference.
- 박의수, 강승규, 정영수, 강선보 (2009). 교육의 역사와 철학, 서울: 동문사. (Translated in English). Park, E. S., Kang, S. K., Jung, Y. S., & Kang, S. B. (2009). *History and Philosophy of Education*. Seoul: Dongmoonsa.
- 반병률 (2019). 통합임시정부와 안창호, 이동휘, 이승만. 서울: 신서원. (Translated in English). Ban, B. R. (2019). *Unified Provisional Government and Ahn Chang-ho, Lee Dong-hwi, and Lee Seung-man*. Seoul: Sinseowon.
- 안병욱 (1986). 도산사상. 서울: 삼육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Ahn, B. W. (1986). *The Thought of Dosan*. Seoul: Samyook Press.
- 유현옥 (2004). 페미니즘 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Translated in English). Yoo, H. O. (2004). *Feminism in Education*. Seoul: Hakjisa.
- 이문원 (2003). 한국의 교육사상가. 서울: 문음사. (Translated in English). Lee, M. W. (2003). *The Philosophers of Education in Korea*. Seoul: Mooneumsa.
- 주요한 편 (1999). 안도산전서(증보판), 서울: 홍사단출판부. (Translated in English). Joo, Y. H. ed (1999). *Dosan Ahn Chang-ho's Complete Works*. Seoul: Heungsadan Press.
- 한국교육철학학회 (2020). 일제강점기, 저항과 계몽의 교육사상가들. 서울: 박영story. (Translated in English). Korean Philosophy of Education Society (2020). *Educators of Resistance and Enlighten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eoul: Parkyoungstory.
- 홍사단 (1964). 홍사단 50년사. 서울: 대성문화사. (Translated in English). Heungsadan (1964). *50-Year History of Heungsa-dan*. Seoul: Daesungmoonhwasa.